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 (30회)

제10편

소사신앙촌 시대 제1부

제 10편
 소사신앙촌 시대 제1부
 一. 신앙촌(信仰村)이란?
 二. 첫째신앙촌 · 소사신앙촌 · 첫째울타리
 1) 소사신앙촌

二. 첫번째 신앙촌=소사신앙촌=첫번째 울타리

1) 소사신앙촌

1957년 입동(立冬)이 지난 11월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박리(範朴里)와 계수리(桂樹里)의 14만평 부지에 신앙촌 건설을 시작하였다. 당시 많은 간부들이 입동이 지난 시기에 건설공사를 시작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 내년 봄부터 하는 것이 좋겠다고 여러 번 강력하게 건의를 드렸으나 영모님은 일체 간부들의 건의를 받아주지 않고 건설을 강행하였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입동 후부터 신앙촌 건설을 시작했으나 날씨는 온화했고, 다른 곳에는 눈이 올지라도 신앙촌 건설장소를 중심으로 사방 30리 쪽에는 눈이 오지를 않았다. 하나님의 예정된 역사는 하늘도 뜻을 같이 해준다는 것을 실감하게 해주는 실로 놀라운 일이었다.

소사신앙촌을 건설하기 위해서 영모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건설대원을 모집하는 것이었다. 영모님은 울타리에 들어가면 마시는 물도 생수고, 목욕하는 물도 생수고, 밥을 짓는 쌀도 축복받은 쌀로 하고, 마시는 공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공기이기 때문에 빨리 안 이루어지려야 안 이루어질 수 없다.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이 14만 4천의 왕의 반열에 제일 먼저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다.(목 7장,14장 참고) 이와 같

은 영모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전도관 교인들은 울타리로 제일 먼저 들어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런 시점에 건설대원을 뽑는다고 하니 건설대원이 되면 제일 먼저 울타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되고 또 왕의 반열에 제일 먼저 참여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 많은 사람들이 건설대원에 지원을 하게 되었다. 지원자 중에는 처녀 총각이 대부분이었고 처녀 총각 중에서도 처녀들이 월등하게 많았다. 또 건설대원 중에는 대학을 졸업하거나 중퇴한 고학력층도 많았다. 다들 신앙을 위해서, 영광된 구원을 위해서 동참한 사람들이었다. 영모님은 이들 건설대원들을 각별하게 사랑하셨다. 안찰도 제일 많이 해주시고, 생수도 제일 강하게 해주시고, 무엇이든지 제일 우선으로 이들을 대해주시면서 “너희들이 잘 이기면 왕의 반열에 틀림없이 참여하게 된다”고 하였다.

신앙촌 건설현장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었다. 가옥은 아름다운 붉은 벽돌로 짓고, 지붕은 붉은색 파란색 노란색 등 다양각색의 색깔로 칠을 하니 비록 완성되지 않은 모습이나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 완공된 후에는 영모님께서 가옥 주위를 정원을 만들고, 아름다운 꽃을 심어 전 주택지를 아름다운 꽃동산으로 만들었다. 또 이곳에 공장도 지었다. 메리야쓰공장, 제과공장, 간장공장 등 신앙촌에서 자급자족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진 것이다.

신앙촌 외부 사람들과는 같이 잠을 자서는 안 된다

드디어 1958년부터 전국에서 뽑혀온 교인들이 신앙촌에 입주하기 시작하였다. 입주한 사람들의 성분은 만민민색의 사람들이었다. 또 전국 각도에서 모여



소사신앙촌 건설을 위해 돌을 이고 가는 건설대원들

들었기 때문에 말투 풍습 등 다양각색이다. 영모님은 입주자들에게 양식은 6개월 정도 먹을 것만 가져오고, 지저분한 장독대 같은 것은 가져오지 말라고 하였다. 그 이유는 6개월 후부터는 모든 것을 신앙촌내에서 자급자족하게 된다는 것이다. 모든 입주자들은 밖에 나가서 잠을 자서는 안 되고, 외부사람은 가족일지라도 신앙촌 안에서 잠을 자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신앙촌사람들은 앞으로 은혜로 무력무력 자랄 것이기 때문에 외부사람들과는 수준차가 많이 있어 같이 잠을 자면 마귀에게 쫓기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우편물이나 또는 쌀 부식도 영모님의 축복을 받은 다음부터는 안으로 반입이 되도록 되어 있었다.

자급자족 하기 위해서 입주자들을 중심으로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영모님은 신앙 안에서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였다. 과연 신앙심이 하늘을 찌를 것같은 사람들이 모인 이곳에서 그들은 영모님의 뜻을 충실하게 따랐다. 생산되는 제품은 최고의 제품이 나왔다. 당시 1958년경의 우리나라는 6.25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때여서 생활은 말할 수가 어려웠고, 국가는 미국의 원조가 아니면 하루도 지탱해나갈 수가 없는 때였다. 거지는 들끓고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군복을 사서 입으면서 너무나도 좋은 제품을 감탄하면서 입곤하던 때였다. 그러나 국내 생산기반은 엉망일 수밖에 없었다. 생산된다는 메리야쓰를 사서 입어보면 한번 입고 빨면 더 이상 입을 수가 없게 구멍이 나거나 뜯어져 나갔다.

신앙촌제품은 품질이 좋아 인기가 솟

았다
 이런 때에 신앙촌에서 메리야쓰가 생산되어 전도관사람들을 통하여 가정을 방문하면서 팔기 시작을 했다. 신앙촌 상표를 붙인 제품이 각 가정으로 직접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이다. 신앙촌제품을 사용해 본 사람들이 그 제품 품질이 너무 좋아 “외제보다 훨씬 좋은 제품이네”라고 하면서 신앙촌제품을 애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 상류층 하류층 할 것 없이 신앙촌 제품 단골들이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되니 신앙촌 상품만 있으면 무조건 밀고 사게 되었다. 메리야쓰를 사발로 제과, 양말, 간장 등이 속속 제품화되어 전국에 쏟아져 팔려나갔다. 이후부터 영모님은 전국적으로 신앙촌 소비조합을 만들어 신앙촌제품을 조직적으로 판매해 나가기 시작했다. 신앙촌제품은 ‘시온’ 상호를 주로 사용하였

다.
 신앙촌 건설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 앞에서도 잠깐 밝혔지만 신앙촌 건설은 영모님이 단순한 구상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계획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기록되는 신앙촌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촌 역사가 당연히 성경 상이나 또는 다른 모든 예언서에 자세히 예언되어 있는 것이다.
 영모님은 신앙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성경의 기록을 읽어 주셨다.

“저희가 가옥을 건축하고 거기 거하며... 저희가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하고 저희가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할 것이라. 내 백성의 수환이 나무의 수환과 같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리리라. 저희가 헛된 수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행된 생산을 하지 아니함은 저희는 여호와와의 복된 주의 자손이 됨이니...(사 65:22-23)”

이 성경구절을 읽어주실 때 다들 너무나도 감격하고 황홀경에 빠졌다. 누가 들어도 신앙촌건설을 위해 예언된 말씀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신앙촌 내에서 믿는 자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공장을 건설하고, 자급자족하면서 타인은 거하지 못하는 오직 신앙인들만의 마을을 만들 것을 예언한 성경구절인 것이다.

또 그곳에서는 인간의 수환이 나무의 수환과 같이 길어질 것을 말하고 있다. 이 신앙촌이 바로 영생이 이루어질 본고장이라는 것을 영모님은 교인들로 하여금 의심없이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 지를 살펴볼 일이다.

用兵有言(용병유언): 군사를 다룸에 이런 말이 있다

吾不敢為主而為客(오불강위주이위객): 자신이 감히 주체(가아)가 되어 하려고 하지 말고 객체(진아)가 하게 하라

不敢進寸而退尺(불감진촌이퇴척): 감히 한 치 나기려 말고 한 자 물러나라

是謂行無行(시위행무행): 이것을 일컬어 행이 없는 행으로

攘無臂(양무비): 팔을 쓰지 않고 빼앗는 것이고

執無兵乃無敵矣(집무병내무적의): 병사를 쓰지 않고 적이 없이 전장을 치르는 것이요

禍莫大於輕敵(화막대경적): 적을 가볍게 여기는 만큼 큰 화는 없다

輕敵幾喪吾寶(경적기상오보): 적을 가볍게 여기면 위태하고 죽게 되고 자신의 보배를 잃게 된다

故抗兵相加(고항병상가): 고로 병사를 일으켜 서로 싸울 때는

則哀者勝矣(칙애자승의): 불쌍히 여기는 것을 근본으로 해야 승리하는 것이요이다.* 김주호 기자

도덕경 해설

則哀者勝矣

칙애자승의

불쌍히 여기는 것을 근본으로 해야 승리하는 것이요이다

도덕경 69장 해설

도(道). 우리는 왜 도를 닦아야만 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도를 닦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는 데에 그 참다운 목적이 있다. 본성은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의미한다. 우리는 그 옛날 선하고 아름답고 진실했으며, 또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며 영원한 생명체였던 것이다. 이것이 본래 우리 인간이 지니고 있었던 진면목이었던 것이다. 이 본성을 알아수도(修道)의 목적과 신앙의 목적과 인생의 목적이 확실하게 설정된다.
 대개 수도인이나 신앙인이 인간의 본성도 모른 채 그것에 열

실히 매진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인간의 본성이 뭔지도 모르고 도를 닦고, 신앙생활을 하고, 세속에서 사는 것은 참으로 헛되고 헛된 일이다. 인간의 내면에 ‘참 나’가 있고, ‘거짓 나’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른다. 수도를 한다든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조차도 이러한 인간의 마음의 구조를 모른다면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인간의 삶의 지고지선의 목표가 바로 온전히 ‘참 나’가 좌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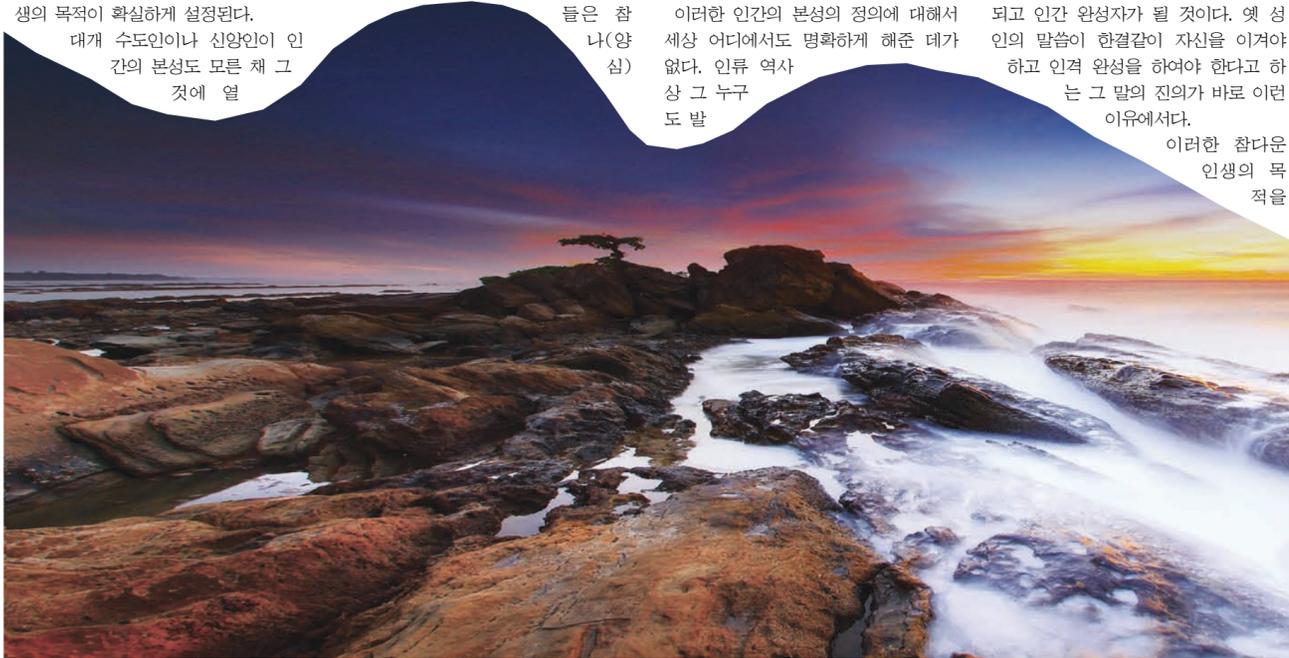
지금의 사람들은 참 나(양심)를 잃어버린 채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참 나(양심)를 찾아가고 있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의 정의에 대해서 세상 어디에서도 명확하게 해준 데가 없다.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발

견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승리제단에 있다. 여기에 참 도가 있고, 참 신앙의 대상이 있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인간 내면에 숨겨진 보화와도 같은 그 본성에 대해 정의한다면, 생명성, 신의, 사랑, 전능성, 인내, 은유, 긍정, 겸손, 감사, 양보 등등. 도를 닦는 사람이나 신앙하는 사람이나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 사람이나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되찾기 위한 방법으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간다면, 곧 그는 인간 승리자가 되고 인간 완성자가 될 것이다. 옛 성인의 말씀이 한결같이 자신을 이겨야 하고 인격 완성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 그 말의 진리가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이러한 참다운 인생의 목적을

이러한 참다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서 사는 하루하루가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 그리고 보람을 느끼게 해준다.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 원리와 이치가 다 여기에 있다. 그렇지 않고 밖으로부터 구하는 그 모든 가치와 행복은 가증하고 거짓되며 속인수에 불과하다. 그것은 마치 환각제를 먹고 순간 황홀경에 빠지고 나서 그 부작용으로 몇 배의 괴롭고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것과 같다. 그것이 바로, 마귀가 주는 쾌락인 것이다.
 인생은 짧다고 말할을 하지만, 인생을 100년도 못 살고 허무하게 죽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을 누가 지혜가 있어 알고, 총명이 있어 깨달을 것인가! 이것을 깨달아 터득한 자만이 진실로 인생의 참 기쁨, 즐거움, 보람, 만족, 감사, 장수를 누릴 자격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이 장에서도 인간의 고귀한 보배와 같은 성품들이 어떻게 인간 만사를 조화롭게 하고, 승리하는 삶을 가져오게 하는가 하는 그 이치



승리신문		1990. 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중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랑함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우 14679	출판사 www.victor.or.kr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